

인터넷상의 성교육 사이트 평가기준의 적용

강남미* · 현태선** · 이필량*** · 김 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로, 이때 성은 남자 또는 여자와 관계되어 일어나는 삶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서구의 성 개방 풍조의 유입과 성의 상품화로 인하여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일시위주의 교육풍토는 성에 대한 관심이 학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받아,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 호기심에 대해 죄책감과 성에 대한 내적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다(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한국성폭력상담소, 1997). 이에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갖도록 하고 현재와 미래의 성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성역할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성 문화의 발달과 왜곡된 성지식의 습득으로 인하여 잘못된 성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청소년 문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성 고민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상원, 신동진, 송인숙과 박순정, 1997; 김상원, 이양재, 박순정, 김수련과 송은일, 1998).

과거 성 관련 교육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정보 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서적 등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한 인터넷 기술은 전문가 이외의 일반인들까지도 인터넷상에서 자신들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손쉽게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성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는 청소년들조차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여과되지 않은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웹사이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차원의 성교육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상품판매나 고객증대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매우 단편적인 성 정보만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출처 또한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제공되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성교육 정보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는 성과 관련된 음란물의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주저자

*** 충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 한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신저자

범람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음란물은 기존의 음란물과는 달리 쉽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으며, 간단히 기하급수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하여도 동일한 질을 유지하며, 전지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음란물들을 성교육정보와 구별하는 작업 또한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성교육 정보를 얻으려 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성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성교육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는 평가기준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Davidson, 1997; Goldberg, 2000),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많아(Hayward, Grigliardi & Jadad, 1997; Jadad & Gagliardi, 1998; Redelmeier, Rozin & Kahneman, 1993; Silberg, Lundberg & Musacchio, 1997; Wyatt, 1997) 그 기준에 따라 많은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유용한 성교육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국내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국내에서 만들어져 현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성교육 사이트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기준의 적용 결과는 국내 성교육 정보 사이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 1) 국내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기준을 성교육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 2) 성교육 사이트의 평가기준 적용결과를 항목별, 사이트별로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적용된 평가기준은 국내 웹사이트에 평가 기준(<http://www.buheon.pe.kr/WebEv>),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강 정보 사이트의 평가 기준(Jadad & Gagliardi, 1998; Silberg, Lundberg & Musacchio, 1997; Waytt, 1997; Kim, Eng, Deering & Maxfield, 1999; Rippen & Guard & Kragen & Byrns & Silber & Buckovich, 1998; Strauss, 1997; http://www.mitret.org/business_areas/health/showcase/documents/criteria.pdf; <http://www.hon.ch>; <http://navigator.tufts.edu>) 등을 기초로 하여 선행연구(강남미, 김진, 탁계래와 현대선, 1999; 현대선, 강남미와 김진, 2000)를 통해 개발

<표 1> 평가설문지

신뢰도	Q1	이 사이트는 성교육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
	Q2	이 사이트를 책임지는 기관, 인(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가?
	Q3	이 사이트를 지원하는 개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가?
내용	Q4	이 사이트의 성교육 정보에는 인용된 정보원이 있는가?
	Q5	이 사이트는 최신의 성교육 정보를 제공하는가?
	Q6	이 사이트에서 성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했는가?
	Q7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외부링크들은 제공되는 성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Q8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정보가 지원기관(자)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가?
	Q9	이 사이트는 처음, 최종 갱신일이 표시되어 있는가?
목적	Q10	이 사이트의 지향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Q11	이 사이트는 성교육 목적과 합당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디자인·기술	Q12	이 사이트는 성교육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가?
	Q13	이 사이트는 원하는 성교육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Q14	이 사이트는 방문자와 성교육 정보제공자의 상호의견교환이 가능하며 활성화되고 있는가?
	Q15	이 사이트는 성교육 관련 도움말 기능이 제시되었는가?

된 평가도구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성교육과 인터넷정보 관련 내용전문가인 연구자들에 의해 평가사이트가 선정되었고, 인터넷상의 사이트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학원생 10명을 교육하였다. 수정된 평가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신뢰도 분야 3문항, 내용 분야 6문항, 목적 분야 2문항, 디자인 및 기술 분야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응답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의 5점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평가설문지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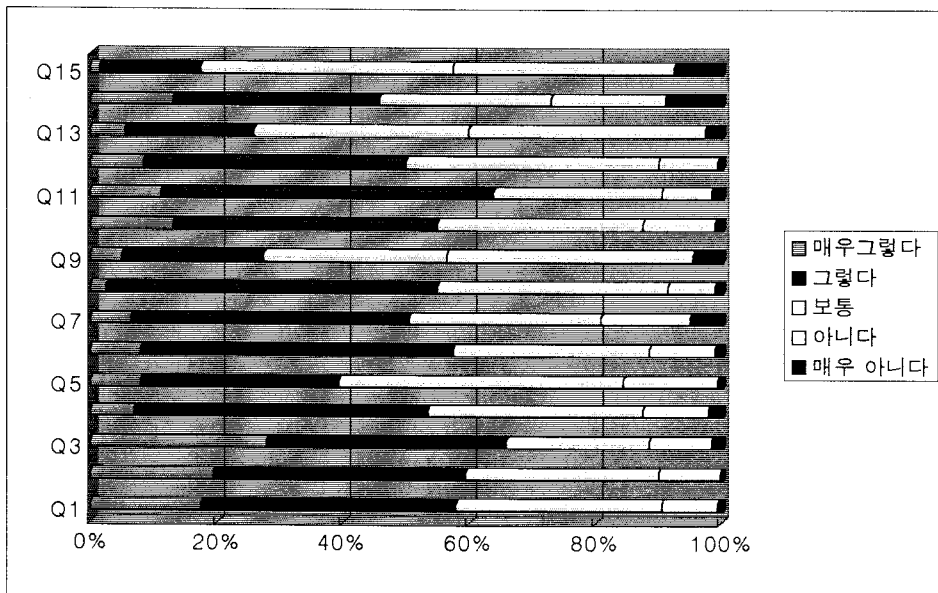
2. 평가에 사용된 사이트

2001년 7월 중 여러 검색엔진들에서 '성교육' 이라는 주제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성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찾은 후, 이 사이트들을 방문하였다. 그 중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련 사이트에 링크가 많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였다. 선택된 사이트는 성 교육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4개, 여러 성교육관련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3개, 성교육관련자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8개, 상업 사이트에서 성교육관련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3개,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2개로 모두 20개이었다. 선택된 사이트들의 이름을 본 논문에서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밝히지 않았다.

3. 평가기준의 적용

성교육 사이트의 평가기준 적용은 대학원생 10명에 의해 행해졌다. 평가자들은 평가문항과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각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항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에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들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최신의 정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공된 날짜 혹은 갱신된 날짜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성교육정보가 관련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공자가 의학/간호학을 전공한자나, 대학에서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관에 의해 평가가 좌우될 수 있는 문항들은 평가기준 적용자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평가기준 적용자에 의한 평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평가하는 사이트들 이외의 부문별로 잘 만들어진 사이트와 그렇지 못한 사이트들을 제시하여 주관적인 평가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 하였다.



<그림 1> 15개 문항에 대한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아니다/매우 아니다의 백분율

4. 자료분석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이라고 응답한 개수에 대한 10명의 평균값을 각 문항별, 사이트별로 구하였으며, 분석에는 통계처리프로그램인 엑셀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평가기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중 성교육과 관련된 평가기준으로는 1996년 7월 웹마스터와 정보제공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HONcode가 있다(<http://www.hon.ch>). 인터넷상의 보건의료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개의 지침으로 만들어진 HONcode는 이를 준수한 웹사이트에 HONcode로고를 나타냄으로서 사용자들이 신뢰성이 있는 사이트를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97년 4월부터는 6개의 지침에서 8개의 지침으로 수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Jadad & Gangliard는 1997년 11월까지 발표된 논문이나 웹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건강정보 사이트의 평가도구를 조사해 본 결과 47개의 평가도구를 찾았는데, 여러 도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준은 저자(authorship), 정보출처(attribution), 투명성(disclosure)이라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도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은 국내 성교육정보 웹사이트의 평가기준으로는 정보제공자가 신뢰할 만 한가, 내용은 정확한가, 제공목적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는가 등이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기준(신뢰도, 내용, 목적, 디자인 및 기술)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평가문항에 대한 응답 보기는 '좋음/나쁨'으로 제시하거나 또는 문항마다 가중치를 주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의 다섯 가지 보기를 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2. 평가기준의 적용결과

개발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국내의 성교육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및 성교육사이트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10명의 평가기준 적용자가 20개의 성교육 정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 사이트 당 15문항에 대하여 적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의 분석은 '매우 그렇다/그렇다'를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니다/매우 아니다'를 부정적인 반응으로 판단하였다.

1) 항목별 평가

<그림 1>은 각각의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이트 수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림이다.

(1) 신뢰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의 신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 '이 사이트는 성교육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는 성교육 내용전문가에 의해 인터넷사이트 정보가 제공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여기서 성교육 내용전문가란 의학/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대학에서 성교육 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적용결과는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58%,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9.5%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항목은 '이 사이트를 책임지는 기관, 인(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성교육 관련 기관이나 대학의 관련 부서에서 제공되는 사이트의 경우 100%가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업 사이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정보제공자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 '아니다/매우 아니다'라는 응답을 받았다. 세 번째 항목은 '이 사이트를 지원하는 개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가?'로, 이것은 어떤 기관이 그 사이트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명확히 명시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66%,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11.53%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성교육 정보의 신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가지 항목인 '이 사이트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었는가?'와 '이 사이트를 책임지는 기관, 인(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가?'와 '이 사이트를 지원하는 개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성교육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평가기준 가운데 정보제공자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다른 기준에 비하여 '매우 그렇다/그

렇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의 "신뢰감"은 웹사이트에 대한 가치 창조 의 핵심으로(Saunders, 1999)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자들은 이 분야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즉, 성교육 사이트운영기관의 신뢰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화번호나 팩스번호와 같은 정보의 제공은 물론 이메일, 게시판 등의 온라인 매체 이외에 정보제공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불만족요소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겠다.

(2) 내용

내용 면에서 첫 번째 항목 이 사이트의 성교육 정보에는 인용된 정보원이 있는가?는 정보의 출처가 밝혀져 있는지의 여부인데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53.5%,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13%로 나타나, 몇몇의 사이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 '이 사이트는 최신의 성교육 정보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평가자의 사전 성 관련 지식정도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항목으로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39.5%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16%로 긍정적인 응답이 다른 질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자는 정보의 제공시 제공 날짜 혹은 변경 날짜를 명시하여 사용자들에게 정보의 최신성 및 타 사이트와의 차별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질문 '이 사이트에서 성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했는가?'는 각 주제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는가 라는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57.5%이었으며, '아니다/매우 아니다'는 12%로 다른 질문에 대한 긍정적 반응의 평균치보다 높았다. 네 번째 질문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외부링크들은 제공되는 성교육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는 외부링크들이 제공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이었는데 '매우 그렇다/그렇다'는 50.5%이었으며, 19%가 '아니다/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질문에서 얻었던 부정적 응답의 평균치보다 높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정보의 제공자는 외부링크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있는 외부링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질문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성교육정보가 지원기관(자)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가?'는 지원기관에 의해 정보가 왜곡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매우 그

렇다/그렇다'가 55%,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9%로 왜곡이 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 질문 '이 사이트는 처음, 최종 갱신일이 표시되어 있는가?'는 처음/최종 갱신일이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27.5%,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44%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웹사이트의 정보 제공자는 처음/최종 갱신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가장 손쉽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 적용자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목적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이트의 지향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성교육정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의 목적이 상품의 판매를 위한 홍보인지, 순수한 정보제공인지, 또는 성교육연구자들간의 정보교환인지를 알기 원한다. 따라서 성교육정보 사이트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만든 사람 또는 기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평가 결과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55%,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13%로 몇몇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를 만든 목적,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이트는 성교육 목적과 합당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로 본 연구에서 선택한 대부분의 사이트는 영리나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순수한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목적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64%로 나타났다.

(4) 디자인 및 기술

디자인 및 기술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이트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가?'이었다.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50%,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10%로 평가되었는데, 인터넷상의 정보 사이트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찾기 쉽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성교육정보 제공자는 앞으로 디자인과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이트는 원하는 성교육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로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26%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46%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정보 제공자는 검색 기능을 해당 사이트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다면 이러한 검색기능의 필요성도 줄어들겠지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검색기능의 추가가 절실해진다 하겠다.

세 번째 질문은 '방문자와 정보제공자간의 상호의견교환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그렇다'가 46%, '아니다/매우 아니다'가 27%로 타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상호의견교환을 위해서 각종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으나, 게시판 관리의 소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실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없다든지, 혹은 상업적인 내용이 올려져있는 경우가 많았다. 게시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제로 하여 회원가입자만이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관리자가 수시로 게시판을 점검하여 부적절한 내용은 게시판에서 제거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게시판들은 모두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으며, 게시판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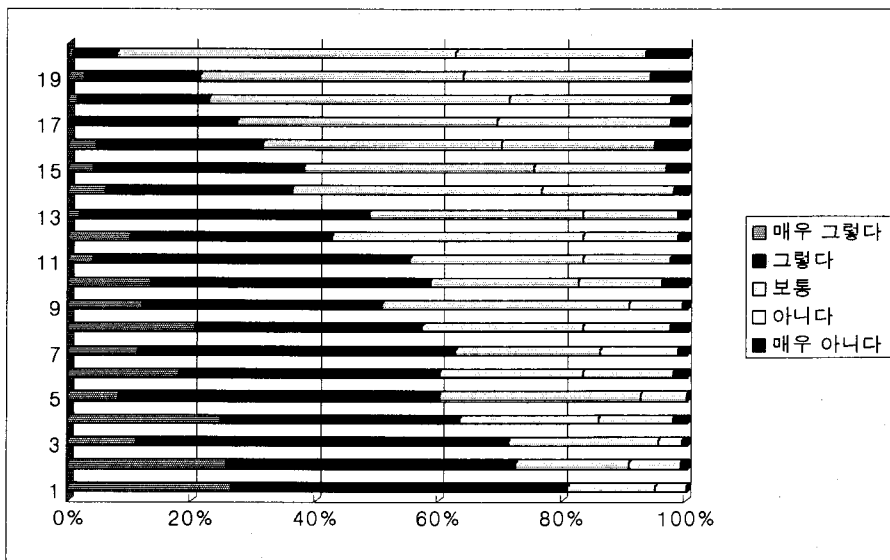
네 번째 질문으로 '이 사이트는 도움말 기능이 제시되었는가?'는 도움말 기능의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17.5%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를 43%가 '아니다/매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이트 제공자는 사이트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움말 기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 평가할 때, 디자인 및 기술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및 기술부분에 대하여 사이트 제공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공하는 웹 사이트는 디자인 및 기술부분에 있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 및 기술부분은 웹 사이트를 실제로 만드는 전산관련자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만 보다 완성도 높은 웹 사이트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사이트별 평가

<그림 2>는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열 명의 평가자가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 라고 응답한 문항 수의 평균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림이다.

즉, A사이트를 평가한 열 명의 평가자의 반응에서 15개의 문항 중 26%가 '매우 그렇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A사이트는 양적, 질적으로 고급의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의 갱신 또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그림을 보면 선택된 각각의 사이트가 15개의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지 또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이트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점수화 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다. 즉 평가된 사이트의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



<그림 2> 20개의 사이트에 대한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의 백분율

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의 개수에 가중치(2/1/0/-1/-2)를 곱한 점수의 합을 총점으로 하였다. 열 명의 평가자가 A사이트에 대하여 15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하였을 때, 총 150문항에 대한 응답을 받게된다. 이 150개의 문항을 반응별로 나누어 계량화하게 되는데, '매우 그렇다'를 50개, '그렇다'를 50개, '아니다'를 50개로 평가한 반응을 얻었다면 총점 100점(2X50+1X50-1X50)을 얻게 된다. 이 점수가 사이트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나 여러 사이트들을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대략적인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공식에 의해 각 사이트의 총점을 구하고 총점에 의해서 20개 사이트들의 순위를 구하였으며, 표 2에서 가장 총점이 큰 사이트A부터 가장 총점이 작은 사이트인 T까지 나열하였다.

〈표 2〉 순위별 사이트와 운영주체 및 총점

순위	사이트	주체	총점	순위	사이트	주체	총점
1	A	단체	152	11	K	단체	60
2	B	기관	130	12	L	단체	52
3	C	개인	116	13	M	개인	49
4	D	기관	108	14	N	개인	25
5	E	단체	91	15	O	개인	21
6	F	기관	89	16	P	상업	1
7	G	대학	88	17	Q	개인	-9
8	H	기관	88	18	R	개인	-11
9	I	대학	79	19	S	개인	-27
10	J	개인	76	20	T	상업	-53

또한 평가된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성교육관련 공공기관(B, D, F, H), 비영리단체(A, K, L), 대학(G, I), 상업(E, P, T), 개인(C, J, M, N, O, Q, R, S)으로 나누었다.

A 사이트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www.ausung.net)로 모든 평가자들로부터 모든 평가 기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질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정보제공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교환의 장인 게시판이 철저하게 관리되어 음란한 내용이라든지 상업적인 내용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있는 점이 돋보였다. 3위와 10위를 제외한 1위부터 10위까지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이들 공공기관과 단체들의 속성상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한 고등학교의 성교육강사 개인이 제공하는 C 사이트가 평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최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다. 10위인

J사이트는 여자고등학교의 양호교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역시 평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에서 제공되는 사이트들도(G, I) 10위 이내에 속하였으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제공되는 정보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 8개 사이트들(M부터 T)은 개인이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회사에서 제공되었다. 개인의 능력의 한계나 상업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든 평가기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하위로 평가된 사이트들에 대해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은 사용자와 정보제공자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게시판이나 상담실 등에 음란적인 내용과 상업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마저 부실하다는 점이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성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었다. 사실상 본 논문에서 평가한 사이트들 이외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사이트들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아주 미흡한 사이트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의 성교육 제공 웹 사이트를 평가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신뢰도, 내용, 목적,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총 15개의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아니다/매우 아니다'의 다섯 가지로 평가하도록 수정하였다. 제안된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20개의 국내 성교육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앞으로 웹사이트의 성교육 내용에는 성교육 관련 정보는 물론 그래픽, 멀티미디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성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성교육 목적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인터넷상의 성교육 사이트를 포함한 건강사이트의 가치 평가 및 분석을 위하여 학제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정량적 기준은 물론 정성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사용자 요구중심의 건강교육 목적에 적합한 평가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의 적용결과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성교육 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평가기준의 적용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1. 신뢰도: 성교육사이트를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개발이 시급하다
2. 내 용: 성교육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이 낡은 정보이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마다의 내용에 있어서의 풍부함, 유용성과 함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내용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3. 목 적: 성교육사이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해당 분야별 내용전문가의 시각에서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즉 전문가 관점의 평가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4. 디자인: 성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편안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은 다운로드 속도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반영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남미, 김진, 탁계래, 현대선 (1999). 인터넷상의 국내 건강정보 사이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의료정보학회지, 5(1), 199-224.

김상원. 신동진, 송인숙, 박순정 (1997). 남자고등학교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김상원. 이양재, 박순정, 김수련, 송은일 (1998). 여자고등학교생의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대한가족계획협회 (1997). 청소년 성상담 전화 활동보고서(제5집).

한국 성폭력상담소 (1997). 건강한 성 만들기.

현대선, 강남미, 김진 (2001).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6(1), 20-26.

Davidson K (1997). The quality of dietary information on the World Wide Web. Clin

Perform Qual Health Care 5(2), 64-66.

Goldberg JP (2000). Nutrition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 what are the challenges and how can we meet them? Nutrition 16(7-8), 644-646.

Hayward RSA, Gagliardi A, Jadad AR (1997). Healthcare on the Internet. Health Measures. September, 28-36.

Jadad AR, Gagliardi A (1998). Rating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Navigating to knowledge or to Babel?, JAMA 279, 611-614.

Kim P, Eng TR, Deering MJ, Maxfield A (1999). Published criteria for evaluating health related web sites : review. BMJ 318(7184), 647-649.

Redelmeier DA, Rozin P, Kahneman D. (1993). Understanding patients' decisions: cognitive motional perspectives. JAMA. 270, 72-76.

Rippen HE, Guard R, Kragen M, Byrns P, Silber D, Buckovich S (1998). Internet health ratings systems : knowledge vs Babel. JAMA 280(8), 698-699.

Saunders, R. (1999). 아마존의 성공비밀, 새스컴 전략기획팀(역).

Silberg WM, Lundberg GD, Musacchio R (1997). Assessing, controlling, and assuring the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aveat lector et viewor, let the reader and viewer beware. JAMA 277, 1244-1245.

Strauss K (1997).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JAMA 278(8), 632.

Wyatt JC (1997). Commentary: measuring quality and impact of the World Wide Web. BMJ 314, 1879-1881.

http://www.mitret.org/business_areas/health/showcase/documents/criteria.pdf.

<http://navigator.tufts.edu>.

<http://www.hon.ch>.

<http://www.buheon.pe.kr/WebEv>

-Abstract-

Key concept : Sexuality education, Web sites,
Evaluation criteria

Appl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for Web sites to Sexuality Education

Kang, Nammi · Hyun, Taisun**
Lee, Pylryang*** · Kim, Jin*****

Web sites on the internet are excellent resource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gain information related to sexuality education.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on web sites are obvious. But the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on web sites could also result in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Yet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on web sites is variable and difficult to assess. There is no rating criteria for quality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on web sites. The rating criteria for quality assessment of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were investigated and reviewed. Among the criteria, best 15 items to evaluate the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on web sites were selected and identified in this study. 15 items were categorized to reliability (3 items), content (6 items), goal (2 items), design & technology (4 items). This 15-items questionnaires is considered as commonly implementable criteria for the information of sexuality education on web sites in Korean. 20 web sites related to sexualtiy education were evaluated and the results were discussed.

* Dept. of Nursing, Konkuk Univeristy, first author
**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Dept. of Obstetrics & Gynecology, Ulsan University
**** Divi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Hallym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